

학습장애란 무엇인가?

- 박 동섭
- littleegan@gmail.com

Adam, Adam, Adam, and Adam

- 이 극명한 대조(물리적 배치의 대조)에 의해 Adam 이 “점점 작아지는 ” 것처럼 보이고, “못하는 아이” 로 모두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 또한 Adam의 “오답-틀림”은 같은 팀의 다른 아이 들에 의해 언급되는데 같은 팀의 다른 아이들의 “오 답-틀림”은 Adam에 의해서도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도 아담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되지 않는다는 대조가 있다.
- 오히려 다른 아이가 틀렸을 때도 아담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것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같은 팀의 다른 아이들이 아담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 2. 역으로 이러한 형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담이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3. 혹은 아담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장면을 조직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4. 동시에 이러한 경쟁이라는 장면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아담이 “못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또한 위의 퀴즈 쇼가 끝난 조금 후에 일련의 숫자를 따라 하는 문제가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 이 문제는 세 가지 숫자를 따라 말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로부터 “너무 쉽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문제는 4개, 5개 6개의 숫자 열로 점점 진행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 말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이 때 아담은 숫자의 열이 증가함에 따라 일단 보통의 상태로 돌아온 몸을 다시 의자 밑으로 숙여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였다.
- 이것을 보고 Nadine이 「아담 괜찮니?»라고 묻고, 또한 Lucy가 「문제가 아담에게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Mike가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라고 말한다.
- 여기서 Adam에게는 7개의 숫자 열 대신에 4개의 숫자를 따라 말하는 문제가 주어진다.
- Adam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 말하기에 성공하고 다른 아이들이 환성을 지른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이 장면에서 Adam이 ‘못하는 아이’ 혹은 “지체된 아이”라는 것은 Adam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것을 표시하고 또한 “감추려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의해서 관찰 가능하게 되었다.
- 혹은 다양한 대조를 통해서 다양한 marking을 함으로써 ‘못하는’ 아담이 관찰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예를 들면 모두는 쉽다라고 말하면서 웃거나, 또한 풀었다라고 하면서 “환성”을 지르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담은 몸을 점점 아래로 숙이고 얼굴을 감싸는 대조가 보인다.
- 또한 아담은 몸을 숙여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더불어 모두가 아담을 comment하고 아담에게 spotlight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그리고 7개의 숫자를 따라 말하기를 해야 할 시점에 아담에게는 4개의 숫자를 따라 말하기가 주어지는 대조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다양한 resource는 아담이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 아담이라고 하는 ‘못하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조직화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dam, Adam, Adam, and Adam

- McDermott가 말하는 방식에 따르자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도록(표시되도록) 장면이 사회적으로 조직화 되는 것이다.
- 이 순간 아담의 ”약함“을 아담을 포함한 다른 아이들이 나타내도록, group이 사회적으로 배치(configuration, constellation)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의 능력“에 spotlight가 비춰지도록 group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다(Hood and McDermott, 1980).

Adam, Adam, Adam, and Adam

- 우리들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머리 속”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상의 예에서와 같이 장면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하고, 상호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다양한 표시를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닐까?

Adam, Adam, Adam, and Adam

- 즉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머리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 보이는 것 (*어떤 특별한 사회적 조직에 의해서 가시화 되는*)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장면을 조직화할 수 있는 한, “개인의 능력”과 “머리 속”이 가시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공동적 display (joint display)는 다른 측면으로부터 보면, Adam이라는 아이가 다양한 활동 사이의 비연속적인 이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Adam, Adam, Adam, and Adam

- 즉 그가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가정에서는 아들이고, 교실에서는 이해력과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고, 요리 club에서는 덜 떨어지지만 활발한 멤버이다. 등등)을 잊고, 학교라고 하는 장 속에 가두는 것을 통해서 「못하는 아이-학습장애 아-」라고 하는 monologue적 역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회화실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McDermott가 관찰에 기초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Adam은 가정에서의 생활, 요리 club에서의 활동, 교실에서의 활동, 심리학자에 의한 테스트 장면 등 다양한 활동 사이를 일상적으로 이동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다양한 얼굴을 보이고 있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예컨대 가정에서는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많은 아이들 이상으로 훌륭하고 charming」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교실 상황과 요리 club에서의 회화를 통해서 이러한 Adam의 다면성은 잊혀지고, 「학습장애아」 아담이 **불변의 실체적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이러한 관점(Socio-cultural approach 혹은 Situated approach)에서 본다면 「학력부진 or 학습장애」는 그 라벨이 붙어 있는 아이에게 내재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아동에게 있어서 외적인 처우에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Adam, Adam, Adam, and Adam

- 「아이가 잘 하지 못함 아이의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시화하는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해당되는 아이의 학습장애성 그리고 학력부진성을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 즉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